

## 근린공원시설 조성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 부산광역시를 사례로 —

김경수<sup>1\*</sup> · 백태경<sup>2</sup>

### A Study on the Actual Conditions of Neighborhood Parks : A Case of Busan Metropolitan City

Gyeong-Su KIM<sup>1\*</sup> · Tae-Kyung BAEK<sup>2</sup>

#### 요 약

오늘날 도시는 이를 구성하는 공간 즉, 토지자원의 사적활용과 공공적 활용에 따라 다양한 모습을 창출하며, 그 중에서도 도시공원은 공공적 공간으로서 도시민의 공동이익을 위한 계획적 조성이 필요한 지역이다. 본 연구에서는 시민이용도를 제고할 수 있는 공원조성을 위해, 부산지역내 근린공원 현황과 개발실태를 분석하고, 수립된 개별공원의 조성계획서를 수집하여 도입시설 유형과 공원규모별, 사업진척별 비교를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아울러 시민이용성에 기초한 근린공원 입안과 조성계획수립에 따른 평가에 중점을 두어 기존연구와 다른 접근을 시도하였다. 이를 통해 근린공원 지정목적인 시민의 건강과 휴양 그리고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원기능 회복을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산지역내 공원은 입지적 측면에서 볼 때, 시가화구역과 접한 산지형의 공원지정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개발사업 위주의 공원조성과 도입시설의 단조로움을 들 수 있다. 셋째, 공원의 양적 확보와 도입시설 획일화 경향을 보인다. 넷째, 조성계획의 사업성 미약을 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개발사업의 공원면적 협소와 관리 부재이다.

주요어: 근린공원,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입시설

#### ABSTRACT

Parks became a matter of concerned among urban planning facilities that have not been executed for a long time because of the judgement of constitutional disagreement. This study deals with actual condition of constructing neighborhood park at the level of urban planning. In order to enhance the coefficient of citizens' utilization of parks, This study analyzes current situation of neighborhood parks

2005년 4월 14일 접수 Recieved on April 14, 2004 / 2005년 6월 28일 심사완료 Accepted on June 28, 2005

1 부산발전연구원 연구기획실 Department of Research Planing, Busan Development Intitute

2 동의대학교 도시공학과 Department of Urban Engineering, Dong-Eui University

\* 연락처자 E-mail : gskim@bdi.re.kr

and developing condition in Busan, revealing problems by investigating types of facilities under construction as well as by comparing size and progress of the parks under construction. This study tries different kind of access to the problems with the emphasis on estimation of planning and establishing neighborhood parks on the basis of the coefficient of citizens' utilization. Through the various examinations, this study brings into relief the problems being created in the course of establishment of parks which functions only as green tracts of land at present.

As a result, the following conclusions could be made. First, from the viewpoint of location the parks, Busan parks are mostly located in the mountain areas adjacent to urban districts. Secondly, establishment of neighborhood parks is usually for development projects and the facilities introduced in them are monotonous. Thirdly, there is a tendency towards expansion of size and standardization of facility. Forthly, establishment plan of parks lacks profitability. Lastly, there is serious limitation in the size of land for developing neighborhood parks, and what is worse, there is no management of them.

**KEYWORDS** : *Neighborhood Parks, Unimplemented Urban Facilities, Introduce Facilities*

## 1. 서론

시민들이 살아가기에 적합하고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도시건설은 결국 도시환경의 질을 높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창출하는 것으로 도시가 자연이나 사회와 공생적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기본적 이념을 담고 있다. 오늘날 도시는 이를 구성하는 공간 즉, 토지자원의 사적활용과 공공적 활용에 따라 다양한 모습을 창출하며, 그 중에서도 도시공원은 공공적 공간으로서 도시민의 공동이익을 위한 계획적 조성이 필요한 지역이다. 그러나 도시계획시설인 도시공원은 시민의 일상생활권내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입지보다는 거주지에서 멀리 떨어진 시외곽 지역에 계획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용자는 장시간 이동해 여가위락활동에 참여하고 있거나 옥외공간의 이용 어려움으로 실내공간 이용이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공원과 관련한 기존연구에서도 이러한 계획상의 문제보다는 이용자 중심에 따른 설문조사가 대다수를 차지하며, 이를 통한 기개발 공원의 관리·정책과 이용·개발에 관한 분석에 중점을 두고 있어 상대적으로 공원개발이나 조성계획상의 문제점에 대한 접근이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헌법불합치 판정에 따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주요 관심사항인 공원시설 중 근린공원시설을 대상으로 도시계획차원에서 조성실태를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에서는 시민이용도를 제고할 수 있는 공원조성을 위해, 부산지역내 근린공원 현황과 개발실태를 분석하고, 수립된 개별공원의 조성계획서를 수집하여 도입시설 유형과 공원규모별, 사업진척별 비교를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아울러 시민이용성에 기초한 근린공원 입안과 조성계획수립에 따른 평가에 중점을 두어 기존연구와 다른 접근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다각적 검토를 통해, 근린공원 결정이 단순히 계획면적 확보에 우선하는 현실과 녹지기능 수행에 불과한 공원조성의 문제점을 부각시키고자 한다. 이를 통해 근린공원 지정목적인 시민의 건강과 휴양 그리고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원기능 회복을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대상 범위는 부산지역내 기지정된 도시공원 중 근린공원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연구방법은 근린공원에 대한 유형별, 지역별 분포 특성과 관리실태를 분석하고, 시설종류별 계획특성을 유형화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목적에 부합토록 공원데이터를 수집하였고

ArcGIS 8.0과 AutoCAD 2002를 사용하여 DB를 구축하였으며, 가급적 자치구별, 유형별, 시설별, 개발밀도별, 규모별, 입지특성별, 소유자별 등 다양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또한 조성여부의 실사와 아울러 담당공무원에 대한 면접조사를 시행하였다. 기 조성계획이 수립된 근린공원을 대상으로 조성계획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부산시 52개 공원의 조성계획 결정조서 중 근린공원 31개소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개별공원의 개발진척도 평가에 사용하였다. 이를 통해 최근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서 가장 집행실적이 낮은 도시공원에 대한 중요성과 아울러 기조성계획이 수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진척이 미흡한 현실적 여건 하에서 미조성 근린공원의 지정사유별 적합성 분석과 개발실태를 분석하고 집행가능성을 제고 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관련연구 동향

도시공원은 크게 위락적 기능, 생태적 기능, 보건적 기능, 생산적 기능 등 4가지의 기능을 갖는다. 이러한 4가지 기능에 적합한 유형별 분류를 살펴보면 현재 도시공원법 제3조에서는 도시공원을 그 기능에 따라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도시자연공원, 묘지공원, 체육공원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특히 근린공원은 도시공원의 설치 및 규모기준에 따라 근린생활권과 도보권, 도시계획구역권, 광역권으로 세분화되고 유치거리와 공원규모에 있어 각기 다른 기능으로 세분된다. 도시계획수립지침(건설교통부, 2000)에서는 공원계획에 있어 각 요소들의 접근성, 개방성, 포괄성, 연속성, 상징성, 식별성을 고려토록 되어 있으며, 공원이 지닌 효용성이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 계획토록 되어 있다. 공원에 대한 최근의 연구동향은 공원관리와 공원이용, 공원개발, 공원분포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공원관리에 대한 연구가 활발한데, 이는 도시공원에 대한 관리에 많은 문제점이 있

음을 반영한다고 하겠다. 공원관리에서는 주로 대도시와의 비교연구(김동필 · 이기철, 1996)와 수도권에 대한 연구(이외희 · 성현찬, 1997; 오정학 외, 1999)가 많은데, 이는 공원의 특성상 지역에 따라 다양한 관리가 요망되기 때문으로 타 도시와의 비교분석이 보편적으로 이루어진다. 특히 대도시의 경우는 공원관리의 일반적 특성과 관리체계, 이용자관리, 예산 등에 관한 연구가 많이 이뤄지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따라 90년대 후반 들어 미개발공원의 조성 및 토지수용방안에 관한 연구와 미개발 근린공원의 개발 우선순위 결정과 관련한 연구(박문호, 1996; 시정개발연구원, 1995; 이기철 외, 2001)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부산지역의 공원관련 연구로는 부산시에서 수립한 공원·녹지 마스터플랜인 공원·유원지 정비 및 개발계획(부산광역시, 1999)을 들 수 있으며, 이외에도 일부 연구(서경천, 1997)가 진행되었다. 특히 부산시의 계획에서는 “생활속의 공원도시 부산”을 위해 시민이 만드는 매력 있는 공원, 늘 푸른 녹색문화도시를 미래상으로 정립하고 있으며, 주요내용에서는 비법적 계획에도 불구하고 공원의 제 문제점과 행정적 문제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타 공원에 관한 기존연구들은 공원이용자 중심의 연구가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분석에 있어서도 공원지정이나 계획상의 문제점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시민 이용성과 일반적 관리특성 위주로 분석되고 있다. 이는 공원연구에 있어 시민 이용성이 중요한 분석대상임을 반영하는 결과이나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그 동안 타 도시계획시설에 비해 개발시급성에서 지연됨에 따른 연구 중요성의 인식부족과 공원 관련 자료의 부족, 세부적 분석을 위한 자료 확보의 어려움에 따른 결과로 여겨진다.

## 부산시 근린공원 조성실태 분석

### 1. 부산시 도시공원 현황

TABLE 1. 선행연구 동향

구분	연구자	분석대상	분석방법	분석내용
공원 관리 및 정책	김동필·이기철 (1997)	서울, 부산, 대구시	실무자 설문조사	식물, 시설물관리, 이용관리, 운영관리
	이동근·성현찬·윤소 원(1998)	수원시	이용자 설문조사	녹지확보
	오정학·고동완·김유 일(1999)	수도권 신도시 (성남, 고양, 군포시)	이용자 설문조사	지역적 정체성, 만족도, 소속감, 주거 만족도
	박문호(1996)	서울시	이용자 및 전문가 설문 조사	우선순위 결정, 정책목표
	김동필·이기철(1996)	서울, 부산, 대구시	실무자 면접조사	공원관리의 일반특성, 관리체계, 이용 관리, 예산
	박용진·김동찬 (1996)	대도시(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시)	실무자 설문조사	공원녹지 관리제도의 조직구조별 의 식, 집단별 차이분석
	성현찬·이동근(1999)	경기도(수원, 성남, 부천, 안산시)	이용자 설문조사	녹지에 대한 인식도, 녹지 요구수준, 녹지의 역할,
공원 이용 및 개발	박성범·김승환· 강영조·남정철· 양위주(1996)	부산시	이용자 설문조사	이용자 만족도
	서주환·김동근 (2000)	도쿄	이용자 설문조사	프로그램(야생조류, 식물 관찰 등)방문 수단, 도달시간, 진행시간, 만족도
	이기철·김경완 (2001)	대구시	전문가 설문을조사를 통 한 평가인자의 가중치 순위	물리적, 이용권, 경제적, 형평성 평가 인자 분석
	서경천(1997)	부산시	이용자 설문조사	이용빈도, 접근성, 이용실태,
	윤용환·송태갑 (1998)	도쿄	관찰조사	공원녹지내의 토지피복상태와 기온변 화, 공원녹지가 주변시가지에 미치는 영향
제도 개선	이외희·성현찬 (1997)	경기도(부천, 수원, 안양 시)	이용자 설문조사, 현지 조사	조직, 예산, 관리방법
	최승호(2000)	서울시	실무자 면접조사	관련제도, 운영실태, 예산관련

2000년 말 기준으로 부산시 공원·유원지 지정면적은 총 78.89km<sup>2</sup>로서 도시계획구역 면적의 7.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공원이 72.3%, 유원지가 27.7%를 차지하고 있다. 부산광역시의 공원·유원지현황을 보면, 도시공원이 379개소, 유원지가 13개소 지정되어 있으며, 이 중 1인당 공원면적은 약 15.0m<sup>2</sup>로서 법적 기준인 6m<sup>2</sup>를 훨씬 상회하고 있다. 그러나 부산시에서 조성된 공원으로 관리하는 공원·유원지 시설은 총 260개소로 전체면적 대비 26%에 불과하며, 따라서 조성공원을 기준으로 한 시민 1인당 공원·유원지 면적은 5.34m<sup>2</sup>로 매우 낮다. 특히 이들 조성 공원으로 관리되는 공원 중에서도 어린이 공원이 216개소로 개소대비 83.9%를 차지하고 있어

지역주민이나 시민들이 생활공간에서 접할 수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원은 매우 적음을 알 수 있다(표 2).

## 2. 부산시 근린공원 현황

2002년 말 기준 부산시 근린공원은 총 85개소로 면적규모로는 27.9km<sup>2</sup>에 이른다. 이중 자치구별 공원지정수는 해운대구가 14개소로 가장 많으며, 강서구(10), 기장군(10), 북구(9) 순을 보인다. 반면 공원지정수가 1개소에 불과한 지역으로는 중구와 금정구, 연제구, 사상구로 나타나 자치구별로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현재 조성이 완료된 근린공원은 19개소로 시설개소기준 23.3%의 조성율을 보이나 면적기준으로는

TABLE 2. 부산시 공원·유원지 현황

(단위 : 개소, 천㎡)

구분	시설결정		조성완료		조성중		미조성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총계	392	78,888 (100%)	260	20,359 (26%)	12	19,154 (24%)	120	39,375 (50%)	
소계	379	57,013	259	18,566	9	6,286	111	32,161	
도시공원	도시자연공원	11	24,990	1	563	2	2,239	8	22,188
	근린공원	85	27,952	34	16,230	6	1,846	45	9,876
	체육공원	2	2,214	1	13	1	2,201	-	-
	묘지공원	5	1,363	5	1,363	-	-	-	-
	어린이공원	276	494	218	397	-	-	58	97
유원지	13	21,875	1	1,793	3	12,868	9	7,214	

자료 : 부산광역시, 시정백서, 2003

TABLE 3. 근린공원 조성현황

(단위: 개소, ㎡)

구분	총계		조성		조성중		미조성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합계	85	27,883,586	19	676,840	11	15,228,442	54	11,978,304
중구	1	69,119			1	69,119		
서구	3	6,001,299			1	5,021,063	2	980,236
동구	2	58,336			1	31,600	1	26,736
영도구	2	808,807	1	15,995	1	792,812		
부산진구	7	5,617,399	1	14,292	1	5,060,608	5	542,499
동래구	8	3,904,878	3	20,889	2	3,677,689	3	206,300
남구	6	313,385			1	57,610	5	255,775
북구	9	520,489	3	54,759			6	465,730
해운대구	14	2,013,070	6	286,462	2	498,495	6	1,228,113
사하구	7	566,164	1	22,236			6	543,928
금정구	1	453,000					1	453,000
강서구	10	962,645	2	230,000			8	732,645
연제구	1	18,854	1	18,854				
수영구	3	190,015			2	88,565	1	101,450
사상구	1	13,353	1	13,353				
기장군	10	6,441,892					10	6,441,892

주: 부산광역시 공원과 내부자료, 2002.

조성면적(676,840㎡)이 전체면적 대비 2.4%에 불과한 실정이다(표 3, 그림 1).

### 3. 미조성 근린공원 입지특성

부산지역내 시설 결정되어 관리되고 있는 84개 근린공원 중 미조성 근린공원은 51개소에 이른다. 이들 미조성 근린공원 입지는 대다수 구

릉지형 산지입지가 대다수를 차지하는데, 이러한 산지형 공원은 부산의 지형적 여건에 따라 불가피한 실정이나 이용성을 감안할 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편 평지형 근린공원은 택지개발에 의한 일부 소규모 공원을 제외하고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미조성 근린공원은 도시계획시설결정에 있어 시민의 이용측면보다는 도시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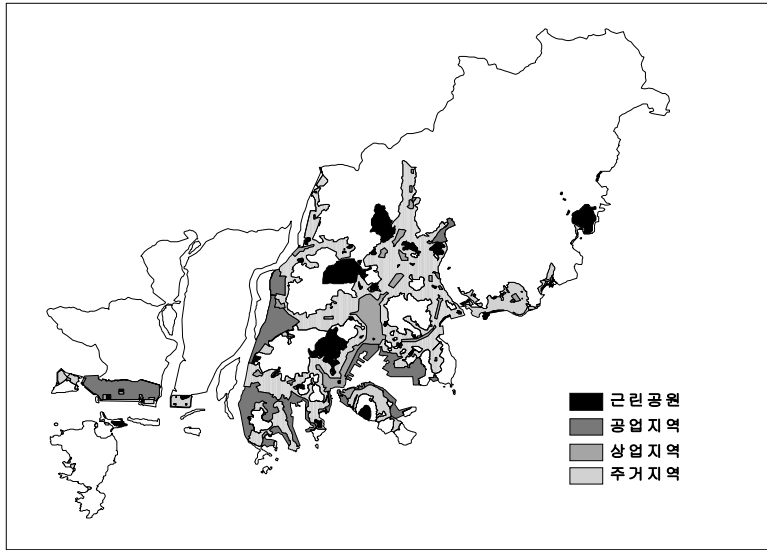


FIGURE 1. 부산시 근린공원 분포현황

법상 확보토록 되어있는 시민1인당 공원확보면적에 기준 하여 지정되기 때문에 지형적 개발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용가치가 낮은 구릉지산지의 시설결정이 매우 높은 특성을 보인다. 지역간 불균형 입지측면에서 볼 때, 근린공원은 근린에 거주하는 자의 이용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각 자치구·군별로 균형적 입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하지만 지역내 근린공원은 지역간 균형적 입지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근린공원 조성계획 특성분석

#### 1. 도입시설별 분석

본 절에서는 기 수립된 조성계획을 세부도입시설 유형분석을 위해, 기 조성된 근린공원과 조성중인 근린공원, 미조성 근린공원별로 구분하여 검토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조성계획이 수립된 공원 중 자료 확보가 어려운 일부를 제외한 총 31개 공원을 기준으로 하였다.

##### 1) 기초성 근린공원

기조성된 근린공원 조성계획 분석대상지구는 총 9개 지구로 모두 택지개발지구내 근린공원이다. 분석에 사용된 이들 지구의 평균 면적은 38,579㎡로서 1만평을 약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성 근린공원은 해운대공원을 제외하고는 시설결정년도가 88~92년에 결정되어 주택200만호 건설시기에 집중 개발된 택지개발지구임을 알 수 있으며, 사업지구의 특성상 시설결정 당시에 조성계획이 동시에 수립된 것으로 나타났다. 택지개발에 따라 조성된 근린공원은 녹지면적이 전체면적의 74.3%를 차지하는 것으로 도출되었으며, 대규모 공동주택 단지내에 입지 한 공원 특성으로 관리시설(13.2%)과 조경시설(4.5%)의 비중이 높은 특성을 보인다.

반면 교양시설과 편익시설, 운동시설은 전체 공원면적의 1.3~1.5% 비율을 차지하며, 상대적으로 휴양시설(0.3%), 유희시설(0.4%)은 극히 일부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표 4).

모라지구 공원은 교양시설로서 청소년수련관이 포함된 특징을 보이며, 해운대 공원은 운동시설로서 볼링장을 계획에 포함하였으나 부지규모에 비해 도입시설은 단순함을 알 수 있다. 대

TABLE 4. 기초성 근린공원 조성계획 도입시설 현황 (단위: m<sup>2</sup>, %)

위치	공원명	총면적	조경 시설	휴양 시설	유희 시설	운동 시설	교양 시설	편익 시설	관리 시설	녹지	시설 결정	지적 고시	계획 수립
		347,217.9	15,757.6 (4.5%)	1,153.1 (0.3%)	1467 (0.4%)	5,025.1 (1.4%)	4,568.7 (1.3%)	5,052.2 (1.5%)	45,837.8 (13.2%)	257,871.5 (74.3%)			
북구	화명(3)지구	22,525.4		576		250			920	20,779.4	89	95	
북구	덕천(1)공원	12,741.1				73			220	12448	88	택지개발	
사상구	모라지구	13,353	410.6	4.3		479.2	3,966.7		266.3	8,225.2	89	87	88
사하구	다대(5)공원	222,36.3		390		29.9			1556	20,260.5	91	95	95
해운대	해운대공원	116,640	1,5319	182.8			42	472.2	14,092	74,227	69	72	87
해운대	대천공원	80,149			1,263	3,370	344	2,422	14,793	59,561.8	92	97	92
해운대	부흥공원	10,736.7	28		204		216	35	3811	6,658.7	92	97	92
해운대	오산공원	19,487.8				367		35	2,386	16,699.8	92	97	92
해운대	장산공원	49,348.6				456		2,088	7,793.5	39,011.1	92	97	92

천공원은 해운대 신시가지에 입지 한 공원으로 조성된 타 공원과 달리 유희시설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유희시설은 어린이 놀이터와 동일한 시설로서 아파트 단지내 어린이공원과 차별화가 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주요도입시설이 놀이터, 조합놀이대, 정글짐, 시이소, 회전대, 모래사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데에서도 확인된다. 한편 대천공원과 부흥공원, 오산공원, 장산공원의 경우에도 대천공원과 유사한 도입시설을 보여 신시가지내에서 차별화 된 공원조성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수익시설로는 대천공원내 매점이 유일하며, 대다수의 공원에서 건축물 형태의 시설도입은 해운대공원(건폐율 8.8%)과 청소년수련관이 입지 한 모라지구공원(14.1%)을 제외하면 1%미만에 그치며, 그나마도 화장실이 차지함을 알 수 있다.

2) 조성중인 근린공원

현재 일부시설만 조성된 조성중 근린공원 분석대상지구는 총 12개 지구로서 기초성 공원과

는 달리 지역내 다양하게 분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어린이 대공원을 비롯하여 현재 시민의 이용도가 높은 지역들로서 대개 조성계획상 도입시설의 50%정도가 조성되어 있다. 이들 근린공원의 평균 면적은 1,274,796m<sup>2</sup>로서 1개 지구당 약30만평에 이르는 규모를 보여 기초성된 택지개발지구내 근린공원에 비해 30배정도 넓은 공원규모를 보인다. 서구 중앙공원을 제외한 대다수 근린공원은 '60~'70년대에 시설 결정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성중인 것으로 관리되는데, 이는 일부시설 조성후 추가조성을 하지 않고 조성공원으로 관리함에 따른 것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현행 미조성공원은 계획지구내 사유대지가 있거나 조성계획대로 준공되지 않을 경우 미조성공원으로 분류하고 있어, 이와 같은 일부준공시설에 대한 조기시행이 요구된다.

조성중인 근린공원은 녹지면적이 전체면적의 91.3%를 차지하여 택지개발지구와는 달리 녹지면적이 대다수를 차지함을 알 수 있다. 이는 현행 도시공원법상의 근린공원 시설부지는 40%이



FIGURE 2. 조성중인 근린공원 분포현황

하로 관리됨을 감안할 때, 다양한 시설도입을 통한 주민이용성의 제고보다는 녹지 보존기능 수행을 반영한다고 하겠다. 도입시설에 있어, 조성중인 근린공원은 시민이용이 높은 공원들로서 관리시설(3.1%)과 교양시설(2.6%)의 비율이 높으며, 조경시설 등 기타시설들은 1%미만에 불과하다. 특히 유희시설의 경우 금강공원, 어린이대공원에 일부 계획되어 있으나 그 규모가 수천평에 불과해 400만 시민의 여가활동 지원에 역부족임을 알 수 있다.

지구별 공원도입시설을 보면, 대연공원은 유희시설로서 어린이놀이터가 계획되어 있고, 운동시설인 게이트볼장, 체력단련시설, 다목적운동장 그리고 휴양시설로서 노인정과 조경휴게지가 있으며, 타 공원과는 달리 교양시설로서 도서관이 입지하고 있다. 어린이대공원은 지역내 근린공원 중 그 규모가 가장 큰 150만평에 달하는 규모로서 금강공원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도입시설로 계획되어 있다. 주요도입시설은 어린이 유희시설과 교양시설이 공원의 주요도입기능이며, 시가지와의 거리적 인접성으로 이용객이 연간 130만 명에 달하고 있다.

영도에 입지 한 함지골공원은 운동과 교양기

능이 주요개발 컨셉을 이루고 있으며, 특히 청소년층 이용도 제고에 특화된 교양시설인 청소년회관, 청소년수련원이 입지하고 있다. 운동시설에 있어서도 실내외사격장을 도입하고 있고 대중음식점, 매점 등 다양한 시설이 계획되어 있다. 부산의 대표적 상징공원인 용두산공원도 교양시설중심의 공원조성이 특징적이며, 부산탑 전망대는 부산의 상징물로서 자리 잡고 있다. 동백공원은 해운대해수욕장과 접한 공원으로 그 규모에 비해 다양한 시설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유희시설로서 모노레일, 수평순환회전차, 경사순환회전차, 수직순환회전차가 계획되어 있고, 교양시설로서 수족관, 돌고래관, 식물원 등을 포함하나 현재에는 도로를 비롯한 일부 편의시설 중심으로 조성되어 있다.

### 3) 미조성 공원

부산시 근린공원 중 63.5%를 차지하는 미조성 근린공원은 대다수 조성계획수립이 되지 않은 공원이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사례분석에서는 10개 공원을 대상으로 하였다. 미조성 근린공원의 평균 면적은 221,032㎡로서 1개 지구당 약7만평에 이르는 규모를 보여 기 조성된



TABLE 5. 조성중인 근린공원 조성계획 도입시설 현황 (단위: m<sup>2</sup>, %)

위치	공원명	총면적	조성률	조경 시설	휴양 시설	유희 시설	운동 시설	교양 시설
	총계	15,297,560.8	-	136,899.4 (0.9%)	24,511 (0.2%)	45,586 (0.3%)	88,092.4 (0.6%)	390,675.19 (2.6%)
남구	대연공원	57,610	10	1,310	1,152	1,974	2,462	5,742
동구	증산공원	31,600	50	1,199.4	419	560	1,853.8	1,200
동래구	금강공원	3,091,923	50	5,803	13,030	24,588	19,150	129,511
동래구	동래사적공원	585,766	20	2,180			1,000	19,051.6
부산진구	어린이대공원	5,060,608	50	74,712	1,997	17,022	11,000	113,369
서구	중앙공원	5,021,063	40	8,430			8,487.6	52,626.59
수영구	수영공원	23,284.8	50		230	400	650	4,320
수영구	광안공원	65,280	50	2,258				323
영도구	함지골공원	792,812	20	6,090	6,334.6		7,940	20,237
중구	용두산공원	69,119	90	616	1,300		302	4,353
해운대	동백공원	149,678	10	759		1,042		11,542
해운대	동래해운대공원	348,817	50	33,542	48.4		35,247	28,400

위치	공원명	편익 시설	관리 시설	기타 시설	녹지	시설 결정	지적 고시	계획 수립
	총계	114,357.3 (0.7%)	478,692.92 (3.1%)	31,219 (0.2%)	13,966,992.2 (91.3%)	-	-	-
남구	대연공원	636	4,593		39,741	44	77	93
동구	증산공원	1,139.3	5,801		19,427.5	86	88	92
동래구	금강공원	20,578.2	54,650		2,831,991.8	65	82	82
동래구	동래사적공원	21,394			542,140.4	72	74	84
부산진구	어린이대공원	13,433	115,838		4,713,237	78	78	79
서구	중앙공원	47,557	187,217.62		4,721,332.5	86	88	94
수영구	수영공원	460	2,220		14,304	68	72	96
수영구	광안공원		1,280	30,919		71	72	96
영도구	함지골공원	6,139.8	25,720.12		720,350.5	72	72	84
중구	용두산공원	753	13,421		44,071	44	66	87
해운대	동백공원	1,733	31,942	300	102,360	66	75	82
해운대	동래해운대 공원	534	36,010.18		218,036.5	70	72	85

택지개발지구내 근린공원에 비해 7배정도 넓은 공원규모를 보인다. 이들 미조성 근린공원은 대체로 70~80년대에 주로 시설결정 되어 오랜 기간동안 미조성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시설 결정에서부터 조성계획수립까지 약 15년 이상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 공원관리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도시계획으로 시설 결정함에 있어, 장래 개발시기 등을 고려하지 않은 계

획상의 문제점을 잘 나타내고 있다.

미조성 근린공원은 녹지면적이 전체면적의 90.9%를 차지하여 조성중인 근린공원과 유사한 녹지비율을 보이고 있다. 사례지구 중 강서구의 명지1, 2, 3공원 등은 명지주거단지에 입지하는 개발지구내 공원으로서 곧 개발에 착수할 것으로 여겨지며, 개발사업지구가 아닌 미조성 근린공원은 수익시설이 극히 낮아 현재와 같이 시차

원의 공원재정확보가 어려울 경우, 장기간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여겨진다. 지구별 공원과 입시설을 보면, 명지1공원은 공원규모가 최소공원규모인 10,000㎡와 동일한 면적으로 부지의 협소에 따라 도입시설에서도 다양함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주요시설로는 인접한 공단근로자들을 위한 근로자체육문화센터가 계획이 되어 있고, 일부 운동시설이 있다. 장전근린공원은 금강공원과 접한 공원으로서 공원규모가 453,000㎡에 달하나 도입시설은 도로와 광장에 불과한데 공원개발 규모상 도시계획구역권 근린공원으로 지역내 거주하는 시민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적정 도입시설 측면에서 재검토 할 필요가 있다. 민락공원은 대규모 운동시설이 계획된 공원으로서 실내체육관이 부산시 근린공원 중 유일하게 계획이 되어 있으며, 해안에 입지 한 지리적 여건으로 편익시설과 조경시설의 비중이 높다. 반면 유사한 해안입지 특성을 가진 송정공원은 10만평에 가까운 공원면적에도 불구하고 도입시설은 전망대와 백사장에 위치한 행정봉사실과 편익시설인 화장실만 계획되어 있어 큰 대조를 이룬다 (표 5, 그림 2).

## 2. 유형별 분석

근린공원은 세부유형에 있어 근린생활권, 도보권, 도시계획구역권, 광역권으로 세분화되어 있으나 실제 관리에 있어서는 세분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일반적으로 근린생활권공원과 도보권 공원은 지역주민의 이용편리성에 우선하는 공원으로 유치거리는 도보권인 1,000m 이내에 설치하며, 그 규모에 있어서도 각각 10,000㎡, 30,000㎡이상으로 설정되어 비교적 공원규모가 적다. 반면에 도시계획구역권 공원과 광역권 공원은 최소 공원규모가 각각 100,000㎡, 1,000,000㎡이상으로 크며, 유치거리에 있어서도 시민의 이용성에 중점을 두고 있어 현행법상의 도시자연공원과 큰 차이가 없다. 이러한 근린공원의 세분화에도 불구하고 조성계획에 따른 도입시설에 있어서는 그 규모에 상관없이 차별화가 되지 않고 있다.

이용객의 입장에서 볼 때, 가급적 여가선용의 기회측면에서 다양성을 접할 수 있는 공원을 선호하나, 현행 공원법상 도입가능시설에서는 이를 충족시키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보다는 오히려 집주변 자투리땅을 활용한 썸지공원형태의 소공원이 거주지 녹화 측면에서 바람직할 것이

TABLE 6. 미조성 근린공원 조성계획 도입시설 현황 (단위: ㎡, %, 년도)

위치	공원명	총면적	조경 시설	휴양 시설	유희 시설	운동 시설	교양 시설	편익 시설	관리 시설	기타 시설	녹지	시설 결정	지적 고시	계획 수립
	총계	2,210,329	9,585 (0.4%)	9,325 (0.4%)	3,405 (0.2%)	44,067 (2.0%)	37,137 (1.7%)	20,675 (0.9%)	77,514 (3.5%)	0 (0.0%)	2,009,204 (90.9%)			
강서구	명지 제1공원	10,000				1,410	1,130	230	1,128		6,102	1989		
강서구	명지 제2공원	10,800			203	640		132	3,345		6,480	1989		
강서구	명지 제3공원	10,900	120		257	1,140		132	2,711		6,540	1989		
금정구	장전공원	453,000							6,752		446,278	1965	1972	
부산진	화지공원	391,362	3,517				17,097	4,199	9,973		356,579	1985	1985	1985
북구	덕천공원	156,170	182			258	7,645	2,454	16,477		129,154	1972	1997	1997
북구	금곡공원	11,909					2,193	993	1,327		7,396	1988	1994	1997
수영구	민락공원	101,450	5,766	5,435	1,873	7,094	1,465	6,878	8,486		65,003	1972	1974	1990
해운대	송정공원	296,228						248	71		295,909	1971	1986	1994
해운대	명장공원	768,510		3,890	1,072	33,525	7,607	5,410	27,244		689,762	1972	1974	19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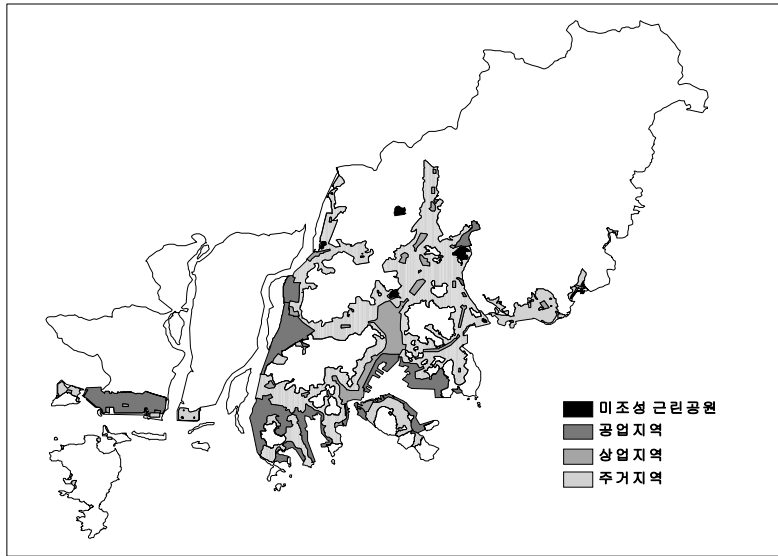


FIGURE 3. 미조성 근린공원 분포현황

다. 실제로 부산은 지형적으로 녹지가 풍부한 실정이나 시민이 거주하는 주거지내의 녹지조성에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현행법상의 공원규모 제한을 통한 획일화는 대도시 측면에서는 불합리하며, 공원개발에 따른 수혜자 이용성을 중심으로 재분류가 필요하다.

한편 현행 공원법상의 규모에 따른 근린공원 유형별 세분화는 근린생활권 근린공원이 35개소로서 개소대비 41.1%를 차지하고 있으며, 도보권 근린공원은 25개소(29.4%), 도시계획구역권 근린공원은 21개소(24.7%), 광역권 근린공원은 총 4개소를 차지하고 있다. 공원조성계획 분석결과, 개별공원의 주요기능은 공원에 있어 다소 차이를 보여 인위적으로 분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는 도시공원법에서

제시한 공원기능별로 분류하였다. 이중 일반적 근린공원 계획에서 도입되는 시설인 조경시설, 편익시설, 공원관리시설은 기능에서 제외하였으며, 휴양시설, 유희시설, 운동시설, 교양시설로 구분하여 유형화하였다. 분석대상공원은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된 31개 근린공원을 대상으로 분류하였다. 하지만 기능별 분류 과정에서 4개 기능의 공원도입기능이 전무한 미조성공원 중 장전공원과 송정공원은 극히 적은 면적의 관리시설만 계획되어 있어 분석에서 제외하였다(표 6, 그림 3).

분석결과 기 조성된 택지개발사업지구내에 속한 근린공원은 휴양기능과 운동기능, 교양기능별로 다양한 패턴을 보이는데, 이는 사업지구내의 공원입지와 공원부지의 여건, 그리고 주민

TABLE 7. 근린공원 기능별분류

구분	휴양기능	유희기능	운동기능	교양기능
기조성 공원	화명3, 다대5, 해운대	-	덕천1, 대천, 오산, 장산	모라, 부흥
조성중인 공원	-	-	중산, 동래해운대	대연, 금강, 동래사적, 어린이, 중앙, 수영, 광안, 함지골, 용두산, 동백
미조성 공원	-	-	명지1, 명지2, 명지3, 민락, 명장	화지, 덕천, 금곡

이용 행태를 반영한 결과로 여겨진다. 반면, 조성중인 근린공원에서는 교양시설의 비중이 매우 높은 특성을 보이는데, 세부공원에서는 같이 이들 공원은 대다수 도시계획구역권 근린공원인 100,000㎡이상 공원이 대다수를 차지한다. 미조성 공원의 경우 택지개발사업지구와 연계된 공원들에 있어 운동기능의 도입이 높음을 알 수 있다(표 7).

### 결론 및 요약

지금까지의 분석내용을 공원입지(지정)와 공원개발, 조성공원에 있어서의 관리측면을 중심으로 제 문제점을 파악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산지역내 공원은 입지적 측면에서 볼 때, 시가화구역과 접한 산지형의 공원지정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오늘날과 같은 미조성공원을 양산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용자 측면에서 볼 때도 이용효율을 저해하고 개발을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분석에서와 같이 부산시의 양적 공원지표는 법적 기준을 초과하고 있으나, 서울시를 제외한 타 도시에 비해서는 적어 양적·질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다른 문제점으로 개발사업 중심의 근린공원조성은 주민이용성에 따른 균형적 입지측면에서 볼 때, 시외곽지역 편중개발을 초래하는 요인이 되고 있어, 기존시가지내 균형적 배분을 위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둘째, 개발사업 위주의 공원조성과 도입시설의 단조로움을 들 수 있다. 분석에서처럼, 택지개발사업 중심의 근린공원조성은 그 규모가 협소하고 획일화되어 법적 개발요건의 충족에 치우치는 경향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공원 관련예산의 확보가 어려운 과거의 예산집행을 통해볼 때, 개발사업을 통한 공원조성은 불가피한 실정이나 가급적 조성규모와 도입시설에 있어 개발사업 수립에서부터 시차원의 공원규모

확대와 도입시설의 검토가 요구된다.

셋째, 공원의 양적 확보와 도입시설 획일화 경향을 보인다. 현행법상 공원은 근린공원 최소 규모를 10,000㎡로 제한하고 있어 다양한 형태의 공원개발에 제약요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제약은 공원의 이용성 보다는 일정규모 이상의 양적 면적 확보를 부추기며, 아울러 공원개발의 획일화를 초래한다. 가용토지가 부족한 부산은 평지에 일정규모이상의 공원부지 확보 불리로서 시민이용성에 우선한 공원개발이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소규모의 자투리 부지를 활용한 공원개발의 필요성이 높으며, 개발에 따른 이용성도 높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현행법상 근린공원 종류의 세분화를 통한 소공원의 확대가 요구되고 있다.

넷째, 조성계획의 사업성 미약을 들 수 있다. 분석에서 볼 때, 도입시설은 기본적 관리시설과 편의시설 중심으로 개발되고 있고, 현행 공원법상 도시공원내 도입가능시설이 획일화되어 수익시설의 확보가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또한 편의시설에서도 음식점이 계획된 공원은 대규모 공원에 일부 계획되어 있을 뿐이며, 대다수의 공원은 매점시설 마저도 없는 실정이다.

마지막으로 개발사업의 공원면적 협소와 관리 부재이다. 분석결과 기초성된 근린공원은 모두 개발사업을 통해 조성되었음이 확인되는데, 택지개발 등의 개발사업이 주택공사, 토지공사, 도시개발공사의 공공부문에서 개발함에 따라, 계획수립단계에서부터 공원면적의 적정 확보를 위한 사전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개발시행자의 사업성 확보가 우선 고려되기 때문에 공원부지는 자투리땅의 활용정도에 그치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향후 개발사업 수립 시에는 공원면적 확보차원에서 용적률과 연계한 인센티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TABLE**

참고문헌

경기개발연구원. 도시공원의 확대전략에 관한 연구. 1997.

김동필, 이기철. 1996. 도시공원의 관리체제에 관한 연구. 한국조경학회지 23(4):1-11.

김동필, 이기철. 1997. 도시공원 관리의 만족요인 및 예측모형 분석, 국토계획 32(3) :229-237.

김명수, 안동만. 1996. 도시공원의 경관생태학적 분석. 한국조경학회지 23(4): 12-19.

김용수, Carpenter, J.D., 이기철. 1989. 도시공원에 있어서 유지관리를 고려한 계획 및 설계 방법론개발. 한국조경학회지 17(1):29-42.

박문호. 1996. 도시공원 조성의 우선순위 결정에 있어서 계층분석과정 기법의 적용. 한국조경학회지 24(1):42-54.

박윤진, 김동찬. 1996. 공원녹지 운영실태 및 의식구조에 관한 연구-조직구조측면을 중심으로-. 국토계획 31(6):147-159.

부산광역시. 1999. 공원유원지정비 및 개발계획.

서경천. 1997. 부산시 공원녹지의 공간적 분포 특성과 주민평가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서울시. 1995. 서울시 공원녹지 정책방향 연구.

서주환·김동근. 2000. 도시공원 이용프로그램의 만족도 분석-도쿄도립도시공원을 중심으로-. 한국조경학회지 28(5):58-67.

서울시정개발연구원. 1995. 미시설공원의 조성 및 토지수용방안.

오정학, 고동완, 김유일. 1999. 도시공원의 지역적 정체성 평가와 유용성-수도권 신도시를 중심으로-. 한국조경학회지 27(1). 79-89.

이기철, 김경완. 2001. 미개발 근린공원의 개발 우선순위 결정. 한국조경학회지 29(1):80-91.

이동근, 성현찬, 윤소원. 1998. 도시녹지공간의 양적 목표치 설정방법에 관한 연구. 한국조경학회지 25(4):158-170.

조정송, 황기원, 박재길. 1998. 한국 도시경관의 새로운 패러다임. 한국조경학회지 25(4):61-81.

차성룡. 1992. 부산시 공원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한국토지개발공사. 1993. 공원·녹지계획지표 연구.

윤용한, 송태갑. 1998. 공원녹지가 주변 열환경에 미치는 영향. 국토계획 33(3):91-98.

조태동, 이명우, 김진선. 1997. 우리나라 자연공원의 용도지구제 개선에 관한 연구. 국토계획 32(5). 185-202.

나정화. 1997. 생태적 도시녹지계획 목표설정과 정책적 해결방안. 국토계획 32(4):269-291.

이재준, 황기원. 1998. 계획원리로서의 어머니터 개념에 관한 연구. 국토계획 33(5). 17-33.

성현찬, 이동근. 1999. 도시녹지정책수립을 위한 주민의식조사에 관한 연구. 국토계획 34(1). 145-154.

이준미, 조주영, 박헌수. 1999. 도시생태공원의 가치평가에 관한 연구. 국토계획 34(3). 159-168.

경기개발연구원. 1997. 도시공원의 확대전략에 관한 연구.

박성범, 김승환, 강영조, 남정철, 양위주. 1996. 도시공원녹지 이용만족도의 인과구조분석 조사연구-부산금정산을 중심으로. 국토계획 31(1). 135-148.

최승호. 2000. 서울시 도시공원 확충을 위한 관련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KACD**